



강동원, '쓰나미 LA'로 할리우드 진출

‘툼 레이더’ 사이먼 웨스트 감독과 작업



배우 강동원(사진)이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18일 미국 배리어터티지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강동원은 ‘툼 레이더’, ‘툼 레이더’ 등을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 감독의 신작 ‘쓰나미 LA’(Tsunami LA)에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쓰나미 LA’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쓰나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덮친다는 설정의 재난영화다. 내년 3월 영국과 멕시코에서 촬영에 들어가며 2019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을 준비 중이다.

강동원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이먼 웨스트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과 만났다. 그는 “이 영화에서 맡게 될 캐릭터와 이번 프로젝트에 기대감이 크다”며 “유능한 분들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사이먼 웨스트 감독 역시 “뛰어난 배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동원은 이달 말 개봉하는 영화 ‘1987’에 특별출연했고 현재 김지운 감독의 신작 ‘인랑’을 촬영 중이다. 주연을 맡은 스티븐 ‘골든슬림’도 내년 개봉 예정이다.

“1987년 뜨거운 순수 고스란히 담으려 노력”

“제가 현실에서 온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영화를 하면서 자주 울어서 민망하네요.” 영화 ‘1987’의 장준환(47) 감독은 최근 분의 아내가 ‘올보 감독’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지난 13일 언론 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폭풍 눈물을 흘린 탓이다.

‘1987’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6·10 민주항쟁까지 기자, 경찰, 대학생, 고도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밀도 있게 그린다. 장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받은 것은 2년 전 겨울. 그때는 지금과 정치·사회적 상황이 달랐다.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만들어져도 개봉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였다.

장 감독은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창작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는 걸림돌이 생길까 걱정했다”고 떠올렸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영화에 가까이 뛰어들 이유는 뭘까.

“시나리오 자체가 극적 긴장감이 있었고, 특히 대공수 사처 박 처장(김윤석)이라는 안타고니스트(악당)를 등뼈로 놓고 전개되는 이야기 구조가 재미가 있었죠. 또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장 감독은 “이 영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며 “우리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1987’은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박희순, 김태리, 강동원, 여진구 등 ‘환상의 캐스팅’으로도 화제가 됐다. 장 감독

영화 ‘1987’ 장준환 감독
걸림돌 생길까봐 2년전 비밀리에 진행
각자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 됐으면
김윤석·하정우 등 화려한 캐스팅 화제



감독은 “저도 어떻게 이런 배우들이 한 작품에 모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상적이었다”면서 “각자 역할의 크기와 상관없이 시나리오를 보고, 동참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각 캐릭터에 골고루 애정을 쏟으며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이 작품의 중심축으로 긴장감을 유발하는 악역인 박 처장도 무작정 악인으로 그리지 않은 않는다. 평안남도 지주 집안 출신으로 6·25 때 월남한 박 처장은 자신이 겪은 고통 때문에 ‘빨갱이’라던 치를 떠는 인물로 나온다.

“그분들 역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고, 전쟁을 겪은 세대죠. 그리고 이념 갈등의 피해를 본 분들이어서 이런 인물의 히스토리까지 보듬어 안으면 영화가 더 단단해질 거로 생각했죠.”

강동원은 ‘잘생긴 남학생’으로 등장해 87학번 신입생 김태리와 인연을 맺는다.

‘1987’에서 김태리가 연기한 연희는 극 중 몇 안 되는 가

공의 인물이다. 유재하와 김승진을 좋아하고 주말이면 미팅에 나가는 평범한 87학번 대학 신입생은 몇 달 만에 사회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저항과 일상 사이의 기로에 섰던 당시 보편적 시민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김태리는 지난해 연말 출연을 결정하고 나서 촛불집회에 나섰다. 영화 속 연희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시간이었다.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슬픔이 있었어요. 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과 삶을 버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서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울컥한 적이 많았어요. 연희가 본 광장은 그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구원자가 있다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은 마음, 자기 자리에 있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광장에 나가게 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를 찍는 동안 시국이 바뀌었다. 광화문 촛불시위가 일었고, 정권이 교체됐다. 장 감독은 “우리나라 국민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1987년을 몰랐던 젊은 세대들이 현실로 광장을 목도했으니, 이 영화에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며 “너무 슬프고 힘든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고 뜨거운 사람이었지.’ 하며 되새김질하고 희망과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추자현·위샤오광 듀엣송 ‘그대잖아요’ 발표

달콤한 결혼생활 담아... 음원 수익 전액 기부

한중 배우 커플인 추자현(38)·위샤오광(于光·36) 부부가 함께 부른 노래 ‘그대잖아요’가 18일 낮 12시에 공개됐다.

앞서 부부가 출연 중인 SBS TV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두 사람이 참여한 ‘듀엣송 만들기’ 프로젝트 과정이 일부 공개됐다. ‘그대잖아요’는 음원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한 부부의 뜻에 공감한 가수 신승훈이 작곡했다. 보사노바 풍 멜로디에 부부의 달콤한 결혼생활이 담긴 가사가 특징인 곡이다.

이날 음원 공개와 더불어 밤 11시 10분에 방송된 ‘너는 내 운명’에서는 부부의 ‘그대잖아요’ 최종 녹음 현상이 공개됐다.

‘그대잖아요’는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 20 MBC네트워크특선(재)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2TV 생생정보	00 MBC 뉴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나눔은 행복입니다 1부	50 저글러스(재)	50 투깝스(재)	10 SBS 뉴스 25 KBS 생황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55 생생정보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B(재)		00 MBC 뉴스 1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재)
1	00 KBS 걸작 다큐멘터리 (결정적 하루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특선다큐 <DIY, 하지 마세요>	1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55 닥터 365
2	00 나눔은 행복입니다 2부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05 지오메카 35 앙코르 MBC 스페셜 (만나면 좋은 친구 MBC의 고백)	00 뉴스브리핑
3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불타는 청춘(재)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UHD 한식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 30 제보자(재)	00 MBC 뉴스 10 앙코르 MBC 스페셜 <종가시절>	00 SBS 오뉴스 45 KBC지켜 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35 송년특집 소록도 두 할매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왓슨들 55 MBC 뉴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저글러스(재)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시사기획 창		0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10	30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00 세계건강기행 20 해외일적드라마 닥터 포스터 시즌2	10 철부지 브로망스-윙피클럽	10 특집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10 컬러 오브 클래식	35 영화가 좋다(재)	15 위대한 영화의 탄생지 (브리짓존슨의일기의 런던)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인도네시아 이션 물랑)	09:40 정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미나리발효액과 해물 청포묵목침>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2:00 EBS 정오 뉴스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크
07:45 출동! 슈퍼맘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08:00 당동명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크-7요일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성년 물고기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15:00 우주탐험가 챗	19:30 EBS뉴스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9:55 극한직업
15:30 오드렛, 이상한 아이들	20:40 다큐오늘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인살라, 모로코 2부 카라반의 황금루트, 사하라>
16:00 여마 개두리	21:30 한국기행 <아콩이기행 2부 유쾌한 최씨 아저씨의 겨울>
16:15 두다다공	21:50 EBS 다크프라이드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글로벌 아홉 님이 삼만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3:35 메디컬 다크-7요일
17:3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24:30 한국영화특선 <가족의 탄생>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나니~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9일 (음 11월 2일 庚辰)

子	48년생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알아. 60년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단하지 말고 이면의 가치를 읽을 줄 알아. 72년생 공감과 친화력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84년생 커리어 진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9, 88	午	42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 하자. 54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청산해야 한다. 66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잠재력이 있다. 78년생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다. 90년생 애써 시도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1, 25
丑	49년생 좀 더 지켜볼 일이다. 61년생 실익을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오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85년생 기회는 나는 새처럼 아무 곳에서도 내려앉지 않는 뱀이다. 행운의 숫자 : 25, 31	未	43년생 말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한다. 55년생 미봉책은 두 번질 시킬 것이다. 67년생 모순이 보인다. 79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91년생 큰 기득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72, 99
寅	50년생 기쁜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62년생 한 번 실수한다면 오점으로 남을 수 있으니 신중을 더 하라. 74년생 바리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86년생 결실을 취하는 바가 풍성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36	申	44년생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56년생 자 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더 낫다. 68년생 우월보다는 기호를 따르는 입장이 되리라. 80년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모두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행운의 숫자 : 99, 35
卯	51년생 거리를 두었을 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63년생 준비하다가 하루해들 다 보내게 될 수도 있느니라. 75년생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아픔이 보인다. 87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행운의 숫자 : 11, 28	酉	45년생 여태까지 쌓아 온 배를 평가받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57년생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겠다. 69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81년생 향후의 판세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1, 46
辰	52년생 큰 것만 바라다가 작은 것마저 놓친다. 64년생 경제성에 일조할 것이다. 76년생 송두리째 버리느냐 아니면 끌어안고 함께 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88년생 취약점이 보이거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8, 54	戌	46년생 평 대신 달이지만 만족도는 괜찮다. 58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70년생 우여곡절이 보이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2년생 비밀은 끝까지 유지해야만 후유증이 없다. 행운의 숫자 : 73, 55
巳	53년생 천수신조로써 대길 하는 운세이다. 65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잡자고 있는 편이 낫다. 77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따른다면 반사가 해결될 것이다. 89년생 관심을 갖는다면 전철의 단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75, 84	亥	47년생 안목이 있다면 미래사에 대해 거의 집착하고도 남음이 있다. 59년생 감당하지 못 하겠으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백 번 낫다. 71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될 것이다. 83년생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00, 1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